7년옥고 후 첫 말씀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호조건과 악조건으로 갈린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하는 자유율법을 선포했죠? 그것을 실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악조건이 되느냐 호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이지 승리제단의 교주 아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 우리 직계 조상이지만 바로 그 위에는 아담과 해와죠? 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아담과 해와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은 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형제예요, 한 형제가 아니에요? 한 피에요, 또 다른 피에요? 한 피죠. 그래서 다 내 몸이에요, 남의 몸이에요? 내 몸이죠.

이러한 합리적인 진리의 말씀인고로 이런 율법(자유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거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지옥을 안 보내려고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그야말로 갖은 고통을 견디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예요, 승리제단 사람만 구원하러 온 구세주예요?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이죠.

구세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육천 년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키웠던 거예요. 자그마치 육천 년간을.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조희성이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만나고도 이 제단을 떠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제단을 떠나서 이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의 자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복을 놓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생명과일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씌어 있죠. 생명과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과일의 본체는 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생명과일을 먹는 과정이 초초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과일이 이 사람의 본체이면서 이 사람의 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슬성신이 바로 생명과일이에요.

구세주가 백보좌 심판자

여러분들! 마귀의 신이 자기를 멸망시킬 구세주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랬을까, 죽이려고 그랬을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귀의 대장을 일찍이 죽여버리고 이겨, 이긴자가 되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지 않아. 재차 이기고 나온 거야.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승리제단 식구들은 큰 포부를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일 초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일까, 그냥 책임일까? 여러분들 의무도 되고 책임도 되죠. 그래 안 그래?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이 사람이 백보좌 심판자야. 격암유록 성운론에 씌어 있어. 이슬 내리는 사람이 정도령이고, 정도령이 바로 구세주고, 구세주가 바로 백보좌 심판자라고 씌어 있어. 여러분들 격암유록을 봤어요, 안 봤어요? 성운론에 씌어 있어요.

구세주 조희성님

그리고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와 있다는 게 은비가에 씌어 있어요. 三眞神中 一人出이라고 씌어 있어요. 三眞神(삼진신)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씌어 있어요. 격암유록은 이 사람을 바로 알려주기 위한 이 사람의 책이에요. 격암유록 새41장에 씌어 있어요. 人生秋收 糟米端風驅飛란 말씀이 있죠. 인생추수라는 건 사람을 추수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알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지, 교도소 안에서 거울처럼 보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정맞게 죄짓는 사람 모조리 잘라버리면 다 죽어. 지옥 가.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골라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입장이에요. 그거 용서해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이 사람이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던 거예요.

5대공약을 이룬 구세주는 이슬로 영생을 준다

이 사람이 1981년도에 역곡에 승리제단을 시작할 때에 5대공약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에 여름 장마 못 지게 한다, 태풍 못 오게 한다, 전쟁 못 일어나게 한다, 풍년들게 한다, 세계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 사람이면 그 말을 대포쟁이로 들어요. 그래서 신앙촌 조장로라는 사람이 조대포가 역곡에 나타났다고 막 선전하고 다녔어요. 대포 쏜다고 말이요. 대포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구세주다 뭐다, 자기가 뭐다 하고서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 사람처럼 공약을 이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말씀드리지마는 인류 역사 육천 년대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영생의 역사 마무리가 칠천 년대에 되는 거예요. 칠천 년대부터 전 세계 인류가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칠천 년이 되려면 앞으로 천 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이 감로이슬을 받는 사람들은 죽을까, 안 죽을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나 감로 이슬이 가는 거지 감로이슬 그 비싼 게 아무한테나 안 가요. 마음에 확신이 차 있는 사람, 매일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이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깍쟁이라고 그랬던 거야. 걸레조각처럼 아무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고 이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충성을 다해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몸이 변해요. 똥·오줌 누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몸이 무겁고 피로하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날아다녀요. 맘만 먹으면 별나라 가는 데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야. 일 초도 안 걸려. 똑딱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빨라.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했죠? 산소 속에 있는 중성자가 바로 이 세상에 빛보다도 억천만 배 바른 속도로 간다 하는 거 얘기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다,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면 바이오트론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야.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몸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서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중성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이 교도소 생활 오래 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중성이 되어버렸어. 중성자로서 완성이 되었어. 인간이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변해서 왔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 안될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요.

반대생활을 해야 영생

이 사람이 밀실에서 연단 받을 때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였다 그랬죠?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긴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을까, 이 사람이 연구해서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거야. 고기반찬이랑 이렇게 놓고 밥을 먹으면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고기 안 먹어. 씀바귀 쓴 거, 그 쓴 거 먹어요. "왜 고기를 안 자십니까? 그 쓰디쓴 씀바귀를 자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 일하기 싫죠. 일하기 싫으면 더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힘이 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나요. 쉬고 싶은 생각이 나면 안 쉬어.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깜깜해지도록 일을 하는 거야.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이 겨울에 찬물로 목욕했던 까닭이 뜨듯한 물로 목욕하고 싶을까, 찬물로 목욕하고 싶을까? 따뜻한 물로 하고 싶으니까 찬물로 한 거야. 이렇게 반대생활 했어.

여러분들도 이긴자의 뒤를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그게 자유율법이야. 반대생활이, 아시겠어? 절대로 이 길은 그렇게 허술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영생을 얻는 길,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희생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어요.*

2000년 8월 16일 말씀 중에서

피의 원리

不老長生 어떻게 가능한가

불행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늙고 병들어 죽는 일

흔히 말하기를 만사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며, 삶의 전반에 걸쳐 두루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계를 다뤄 본 사람은 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고장의 원인을 찾는다.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고장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 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고장과 같은 것이 불행이다. 불행은 인생을 삐거덕거리게 하여 괴로움을 초래하고 삶의 의욕을 꺾는다. 불행은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대 골칫거리다.

그런데 인류는 왜 계속해서 불행이라는 고장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엉뚱한 것만 만지작거리며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서 뱅뱅 돌고 있을까?

물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인류가 맥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오늘날의 종교가 그렇고 학문이 그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행의 원인을 찾느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불행의 요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일반적으로 불행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자. 사람에 따라 불행이라 여기는 것들은 천차만별이지만, 두드러진 불행의 요인들이 돈 없음, 직장 없음, 재산 없음, 명예 없음, 배우자 없음, 친구 없음, 병듦, 늙음, 죽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니 딱히 어느 것이 진짜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인지를 명확히는 알 수 없다. 마치 고장의 원인을 다각도로 다양하게 진단하여 파악해 냈지만, 어느 것이 진짜 고장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나 해야 할 것이다. 기계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고장이 되는 불행을 정확히 집어내지를 못하고 있으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래서 명쾌하고도 납득할 만한 고장의 원인이 되는 불행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찾아내자. 탐구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각도로 전체적인 사고를 통해 냉철히 분석하고 파악해 보면 확실히 규명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 보자.

혹자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반대로 불행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없다고 불행할까? 요즈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TV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가 있다. 거기에 출연한 사람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병만 들었다고 그의 어리석은 삶을 자책하고 후회하였다.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소중한 것이 욕심 없이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행복의 푯대가 돈이 되어 돈을 수십 조를 쌓아놓고도 돈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설사 돈을 이리 저리 잘 쓰며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하자.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쌓아 놓고도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남녀지간의 사랑은 어떠한가? 인생을 짧고 굵게 산다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으나, 과연 남남이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설사 반평생은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 다정다감하게 살지는 몰라도 과연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기약할 수 없는 이별, 죽음을 고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안 들겠는가 말이다. 세상에서 뭘 하든 간에 종극에 비참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문이 들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았던 것들은 마치 냄비 속처럼 따뜻하게 데워지는 물속에서 좋다고 안주하고 만족해하다가 어느덧 펄펄 끓는 물에 자신도 익어서 죽는 것과 별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복의 무수한 양상과 물질적인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삶의 주요한 목적이고 전부가 될 수 없다. 돈, 재산, 명예, 향락, 결혼, 권력 따위에 사람의 행복의 관점이 모아진 것들은 크게 잘못 된 것으로 마약과도 같은 것이다. 일단 취하면 당장에는 좋다 행복하게 느낀다. 하지만 추하게 고통스럽게 늙고 병들어 죽어간다는 현실 앞에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는 운명이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허무와 공허 속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비극적 운명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세상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한한 것을 다 얻고 누리고도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루를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를 불쌍하게 보는데 인생도 따지고 보면 유한한 생을 가진 존재로서 하루살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눈물 흘리고 지난 생을 자책하고 후회해봐야 다 부질없다.

피의 원리는 쇠병사장(衰病死葬)을 몰아낸다

자아, 때 늦은 후회는 소용없다.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좀더 인생을 세상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인생의 설계와 방향을 설정하자. 서산에 해 넘어가듯 우리네 인생이 죽음에 문턱에서 못내 아쉬움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일찍 철이 들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 한평생을 전력투구했더라면 최소한 후회와 미련은 없지 않겠는가!

일찍이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되는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가련한 인생의 운명을 한탄하며 생사를 걸고 쇠병사장을 모면해보려고 했던 위인이 성인이자 도인의 반열에 서서 후대의 길 안내자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 받게 되었던 사람이다.

우리 후손들에 대한 일성(一聲)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선지자와 선각자들의 애끓는 절규요 몸부림인 것이다.

국가와 종교와 이념을 떠나 인생 본연의 불행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따져 보아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인간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쇠병사장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이론과 실천 방법을 과학적이고도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밝혀낸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기쁨으로 환영할 일이지, 의심의 눈초리로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이론과 실천 방법이 허무맹랑한 낭설인지 실현 가능한 정답인지의 여부를 놓고 시비를 따져보면 그것으로 다이다.

피의 원리의 제시는 인류의 크나큰 불행이 되는 쇠병사장을 몰아내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길이길이 영원무궁토록 살자는 데 그 뜻이 있을 뿐이다. 인류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벗어나서 불로장생을 하며 희희낙락하며 살자는 것뿐 무슨 다른 숨은 의도가 없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 똑같다.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드러내면 인종과 빈부귀천을 떠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 인류에게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쇠병사장을 어떻게든 극복해내야만 한다. 피의 원리는 거기에 가장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심리와 육체를 시간과 공간을 자유로이 관통해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손아귀에 쥐어 주는 정답이자 진리가 될 것이다.*

김주호 기자